

韓國 傳統 農家 안방의 住生活 變化過程
—1950년대 이후 平澤郡 梧城面の 農家를 中心으로—

Changes of Housing Life Style in the Anbang of the Traditional Korean Farm House
—After 1950 in Kyongki Province—

성심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高道任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교수 尹福子

Dept. of Home Management, Song sim University for Women

Prof.: Koh. Do Yim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 Yoon, BokCha

〈 목 차 〉

- | | |
|------------|---------------|
| I. 序 論 | IV. 調查結果 및 論議 |
| II. 理論的 背景 | V. 結論 및 諸言 |
| III. 研究方法 |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hysical change of the farm house and its anbang(the main room : master bed room), to identify the behavioral changes : activity and awareness of anbang,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changes of the farm house, and the behavioral changes of housing life-style in the anbang space.

Bibliographical studies, cultural approaches and field survey method with questionnaire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55 residents of Anwhari and Yangkyori in Pyong Teck Koon. Tables and drawings were made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heating system of the ondol anbang. The most popular type is the double heating system(new pipes added to the traditional ondol). This combination ondol system brought some conviniences to the farmers. This

change in structure of the ondol were of four types : Complete change in style, enlarged-completely changed style, partially changed style, enlarged-partially changed style. 2) from 1960 through 1970 lighting of the anbang changed from oil lamp to electricity. 3) the finishing material of the anbang floor changed from traditional oil paper and straw mats to vinyl flooring. 4) Traditional furniture and small decor item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are being replaced by modern items. 5) The awareness and actual use of the ondol anbang has not much changed from the multi-functional and sacred space of daily living :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ondol anbang.

The biggest consistency in the ondol anbang is the heating system of the floor,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ondol culture in Korea. This system will continue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in Korea.

I. 서 론

우리나라의 주택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여러 환경요인들에 대해 적응 또는 순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활과 공간의 대응관계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필요와 가치관에 따라 변천되고 발전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

거주자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구조체인 동시에 삶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창조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주택에 대해 일찌기 Rapoport(1969)는 기후, 재료, 공법들의 물리적 요소보다도 사람들의 의식, 가치, 신념등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형태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각지방의 주거형태는 단순히 물리적 힘이나 어느 한가지 요소만을 반영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범위의 사회문화적 요소의 산물임을 밝혀 주거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도 주택 및 제반 환경과의 관계에 따른 주거생활공간의 형성과정을 생태학적 개념모형을 제시하여 설명한 연구(윤복자의 2인, 1990)가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거시적 측면의 정치, 경제, 기술, 자연환경 그리고 미시적 측면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개인과 가족 행태환경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환경요인과 주택간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속에서 주거형태가 변화하며 이는 다

시 생활공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거주자의 생활공간에 대한 의식과 행위를 포함한 미시적 측면의 환경요인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생활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함으로써 주거사회문화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한 Rapoport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한국의 전통주택은 조선시대부터 당시의 사상적 근간을 이룬 송유정책에 따른 내외법의 영향을 받아 채와 간의 분화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주택 전체는 엄격한 남녀 구별의식에 따라 남성을 위한 사랑채, 여성을 위한 안채로 분리되었고 이들 채와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 역시 성적으로 분화되는 특성을 보였다(朱南哲, 1987).

전통주택의 여러 생활공간 중에서도 안방은 대단히 중요한 곳으로 침식은 물론이고 예로부터 집안의 중요한 재물이 보관되고 장이나 농 등으로 가장 많은 장식이 되었으며 새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의 임종도 여기서 이루어졌으며 가장이나 주부의 몸이 불편할 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등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다(崔在錫, 1975; 申榮勳, 1989; 金光彦, 1988; 洪亨沃, 1986). 안방의 이러한 다각적 기능은 오늘날에도 강하게 지속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신영숙, 1987; 윤정숙외 2인, 1990),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안방은 서양의 거실보다 훨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수백년을 거쳐 전해오던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생활은 일제치하의 식민지 시대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서구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후 1960년대의 농촌 근대화시책과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도시에 비해 전통적인 생활이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농촌주거에 있어서도 큰 변혁을 일으켰다(최찬환, 1986).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 현상으로 오늘날엔 나라와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적, 세계적으로 생활양식이 동질화 되어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화적 보편성에 따라 변질되어가는 각 문화권 고유의 전통성이 강조되고 있다(Naisbitt, 1990; 윤복자외, 1991).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주거의 전통성(개체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로 최근들어 전통주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종래의 주택원형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거시적 측면에서 농촌취락의 형성과 주택의 물리적 측면을 주로 다루었을 뿐 미시적측면 특히 주거자의 행위와 의식 등 행태적 측면을 연관시켜서 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주거에 대한 생활문화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주택의 물리적 변화와 거주자의 행태적 변화과정과 그 둘의 관련성을 밝히는 동시에 아울러 그 속에서 불변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주거문화의 독특성을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농가의 물리적인 변화를 조사한다.
- 2) 안방에서 나타난 물리적인 변화를 파악한다.
 - 안방의 구조적인 변화를 조사한다.
 - 안방 실내공간의 변화를 조사한다.
- 3) 안방에 대한 생활적 측면의 변화를 밝힌다.
 - 안방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변화를 파악한다.
 - 안방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파악한다.
- 4) 농가의 물리적 변화와 행태적 측면의 변화간의

관련성을 찾는다.

<도표 1>은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 목적을 도식화한 연구개념의 모형이다.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1) 조사지역과 주택의 범위

① 조사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를 해본 결과 전통 주택의 일반적인 평면배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ㄱ자 혹은 ㄴ자형의 민가 즉 ㄱ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하여 사랑채와 행랑채 등이 부속되어 있는 유형은 중부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과 서울과 근접하여 있다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조사지역을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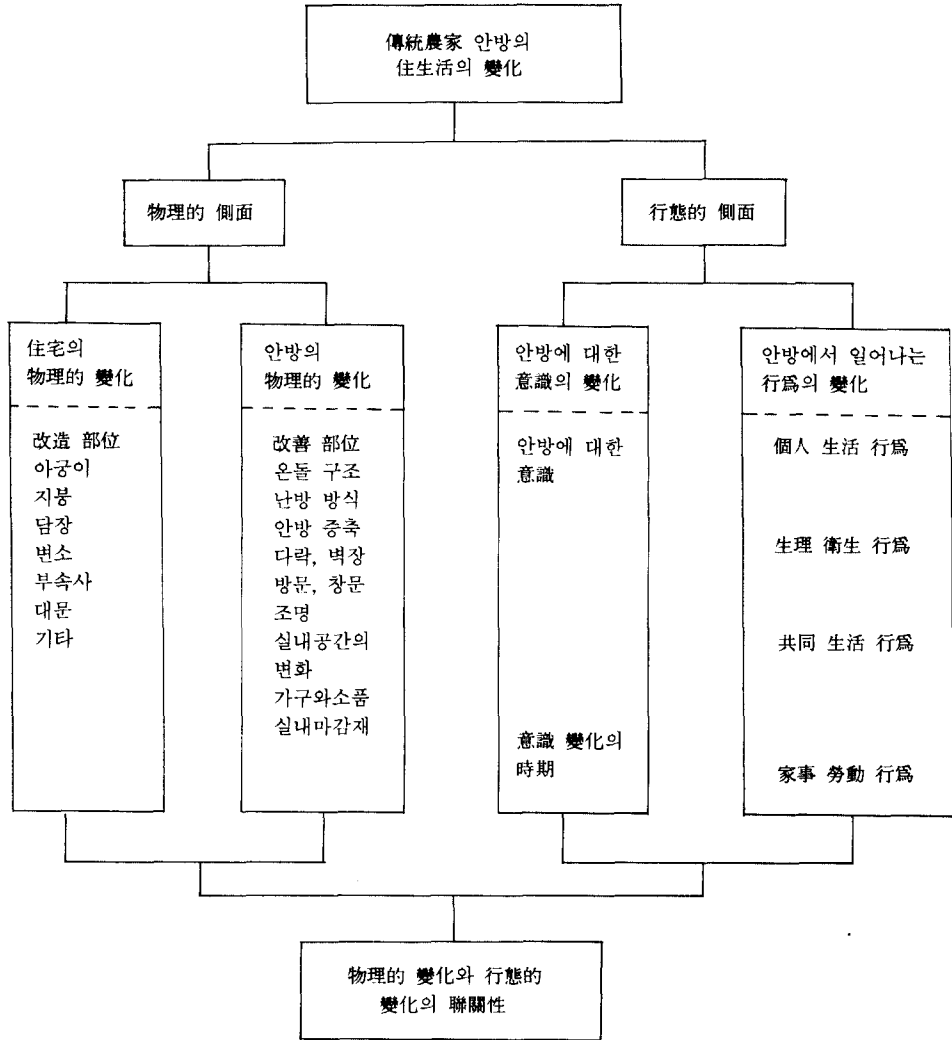
② 조사대상 농가는 주택구조상 전통적인 목구조 주택으로 건축당시의 원형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거나 혹은 주택의 일부분에 약간의 증·개축이 행해진 것만으로 한정하였다.

2) 응답자의 범위

전통농가의 안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생활적 측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 대상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알고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부로 정하였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을 밝히기 위해 앞서 조사지역 및 주택으로 국한된 경기도 지방의 재래식 전통농가에서 최소한 20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주부중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친자녀 혹은 양자녀)를 양육해 본, 전업농가 혹은 겸업농가 주부로 그 범위를 국한시켰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 및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 임의로 구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화 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아



〈도표 1〉 研究 概念 模型

직까지 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안방을 중심으로 발생된 생활적 측면에서의 변화내용을 공간적 변화와의 관련속에서 심도있게 다룬 연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타지역 농가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없었다. 그밖에도 면접조사 대상자인 주부들이 고령자들이므로 그들이 결혼하던 당시를 기점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여 응답내

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지역 동리 이장의 자문과 기록물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완하였으나 생활행위나 의식 등에 대해 응답자로부터 보다 명확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던 점 등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그 뜻을 제한한다.

민가 : 각 지방의 민속 전통에서 유래된 집으로 대다수 백성들 즉 서민과 농민들이 가족단위로 살림을 하는 집이다. 민가는 전문가가 아닌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경험에 의해 산출한 건축이며 그 결과 그 사회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이다.(전통민가 : 산업사회 이전의 민가. 현대민가와 구별됨).

농가 : 집 안과 밖에서 가축의 생식, 채소와 곡식을 가꾸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연결 및 농업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가구이다.

농가유형 : 농사에만 의존하는 전업농가, 농사와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겸업농가, 농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을 가진 비농가로 분류한다.

외부공간 : 주택건물을 제외한 농사용 부속사와 작업공간 즉 마당, 축사, 헛간, 창고, 퇴비사, 변소(따로 있는 것)등을 말한다.

내부공간 :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에 포함된 주택건물의 내부를 가리키는데 창고나 외양간이 사랑채나 행랑채에 포함되어서 건축이 됐다면 이들도 내부공간으로 간주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가와 농가의 개념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인 대응이 주거라는 건축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랜기간에 걸쳐 그 안에 삶의 지혜가 축적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계속 살아남아 유지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갖는 주거형태를 일반적으로 '민가'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그것이 단지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민가'라고 하면 막연히 '서민층의 주택'으로만 생각하며 특히 '농가'와 '민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문헌에서 언급된 '민가'와 '농가'의 개념을 유사한 내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성기(1985)는 민가란 "서민층의 여러가지 주거형"이라고 하면서 이때 서민의 개념은 공적 입장을 띄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민족의 다수, 보편적 핵을 이루는 계층이며 민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서민이라는 말 대신 민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민가의 정의를 내린 김홍식(1980)은 민가란 "민중들이 삶을 영위했던 주생활공간"이라고 하였다.

윤장섭(1987)은 민가란 "한나라와 민족의 사회대중에 속하는 농민층과 서민층의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나라 민족의 주거형태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朱南哲(1987)은 서민주택이란 "농, 공, 상에 종사하고 조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사는 평민들의 주택"이라고 언급하였다.

張保雄(1986) 역시 민가에 대해 설명하기를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으며 농가들의 생활 및 생산의 장으로서 질서가 내부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문화의 시대적 누적이 집합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민가라고 하는 주택 형태 대신 민속건축물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전개한 연구자들도 있다. Rudofsky(1977)는 건축물의 유형을 선택된 공식적인 건축과 건축가 없는 건축으로 양분하면서 이중 건축가 없는 건축에 대하여 "소수전문가가 세운 것이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공동된 문화유산에 가진 전 구성원의 자연발생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의해서 생산된 공동체적 예술"이라고 함으로써 민가를 포함한 소위 민속건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Allsopp(1977) 역시 건축의 유형을 민속건축(folk architecture), 토속건축(vernacular architecture), 종교건축(Spiritual architecture), 기념건축(Monumental architecture), 실용건축(utilitarian architecture)으로 분류하면서 이중 민속건축(folk architecture)에 대하여 "한 공동체의 구성원 개개인을 중요시하며 그 공동

체의 전통과 풍속에 따라 설계되지만 이는 동시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 설계된 건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Rapoport(1986)는 공동체적 건물로서의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vernacular'로 표현되는 평민의 주택형태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를 우리는 흔히 '민가'로 번역하여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주택의 형태를 원시적 주택(primitive vernacular), 선산업 주택(pre-industrial V.), 그리고 고급 현대주택(high style & modern V.)등으로 분류되고 "원시적 주택이란 모든 사람이 직접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며, 선산업 민가란 원시건축 보다는 다소 발전하여 개별적 변화는 더 많으나 건축형태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목수와 주민이 함께 즉 공동체가 함께 집을 짓는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 내외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토대로 연구자 나름대로 민가와 농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민가란 문화적 유산과 전통이 유래되어 그 사회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으로서 서민이나 농민 혹은 평민들이 가족단위로 살림(생활, 생산 및 소비)을 하는 주택이다. 이는 그 공동체 사람들을 위하여 또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 설계되는 것으로 그중에서도 전통민가는 산업사회 이전에 생긴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현대민가와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가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가의 한 형태인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일반 농민의 주택일 경우 이를 농가라 부르게 되며 특히 산업화되기 이전의 주택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을 전통농가 혹은 재래식 농가로 지칭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농가는 전통 농가로서 농민들이 가족단위로 살림을 하는 주택으로 그 개념을 정의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본 결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가 주택

의 물리적 특성 중심의 연구들이고 두번째가 주생활 공간과 주의식에 대한 논문들이며 세번째가 주공간 사용행위와 주의식에 대한 것이며 네번째는 기타 관련 연구들로서 주거양식, 주의식, 주거에 대한 규범과 주거문화 및 연구 방법론등을 다룬 것 들이다. 각각의 연구 영역별로 조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특성 중심의 연구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중 주택의 구조 및 배치의 특성, 주거공간의 평면, 구성등 물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변화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들이 있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조성기(1985)와 박경옥(1987, 1988), 이원(1987), 한필원(1987), 이동락(1988), 장덕찬(1989), 그리고 윤정숙외 3인(1989, 1990)이 있다.

2) 주생활공간과 주의식에 대한 연구

농촌에서 주거공간 및 주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연구한 조재순(1978)의 논문과 안방에 대한 도시인의 의식과 공간 사용실태를 조사한 송민영(1987), 중산층 주부의 주거공간 사용과 가족간 상호교류형태에 관한 연구를 한 신영숙(1987)이 있으며 그외 부엌공간과 취사공간의 설비와 구조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로는 최병숙(1988), 유옥순(1988), 지순외 2인(1991)이 있다.

3) 주공간 사용행위와 주의식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안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행위와 의식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자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해 본결과 6편이 있었다.

그런데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활행위는 다른 공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여 정확히 분류해 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는 주택의 규모나 평면배치가 같고 또 가족의 수나 가정생활주기가 비슷한 가정이라 할 지라도 각 가정의 생활수준이나 생활습관 또 가족 구성원의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그밖에도 한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분류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논문으로는 Barker(1968), Faulkner(1975), 윤정숙의 2인(1990), 이중우의 1인(1988), 이연숙(1990), 임춘삼(1989)의 논문이 있다.

4) 기타 관련 연구

윤복자의(1990)는 주거학 개념의 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7 단계로 나누어서 연구한 것과 홍형욱(1986)의 주거생활역사연구, 최찬환(1986)의 도시와 농촌의 주거양식의 변천과 비교연구가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사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1. 조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농가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측면의 변화와 주민들의 주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주택에 대한 관찰 및 실측, 스케치, 사진촬영등을 이용한 현지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밖에도 조사지역내 면사무소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서적, 행정 기록물과 마을의 원로되시는 분들과 이장님들의 증언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조사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기타 참고문헌을 토대로 하여 경기도내의 농촌마을 다섯곳을 정해 놓고 탐색답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傳統農家가 많이 남아 있는 平澤郡 梧城面 安化里와 梁橋里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현지 보조원과 조사원(대학원생과 대학생 10명)에게 3차에 걸친 교육(3면의 교육지침서를 작성함)을 시켜서 연구자와 함께 준비된 설문지로 예비

답사를 실시한 후에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하였다. 탐색답사는 1991년 1, 2월에 실시하고 예비조사는 같은해 5월에, 본조사는 7월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안화리에서 30가구, 양교리에서 34가구가 정밀조사 되었으나 그중 9가구는 기준미달로 제외되어 최종 55가구가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조사자료 처리 및 분석

정밀조사로 얻어진 자료를 모아 자료집을 작성한 후, 그 자료집을 근거로 하여 주택과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사항과 안방의 규모, 구조, 증축 및 개조여부, 가구와 소품 및 안방에서의 마감재의 변화등 주택과 안방 공간에 관련된 물리적 측면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부의 주의식과 안방을 중심으로한 생활행위의 변화내용에 대하여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 자료는 연세대학교 전산실에서 SPSS 프로그램으로 처리 되었고, 통계기법으로는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시기별 분포등을 활용하고 이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도표와 그림등으로 나타냈으며, 실측한 평면도와 사진을 활용하였다.

Ⅳ.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지역의 일반적 사항

조사농가 55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주부의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아서, 평균연령은 주부, 남편 모두 56세였고, 학력은 부부가 모두 국졸이 가장 많았다. 또 조사가구의 약 반 정도는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가구 거의 다 전업농가였고 극히 소수만 겸업농가나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족형태는 1대와 2대가 함께 사는 가족과 노부부만 사는 핵가족형의 두가지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가구의 연령에서는 고령화 추세를 엿볼수 있었다.

농가 전체의 물리적 변화 중 큰 것만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부터 등잔불이 전기불로 바

뀌었고,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농가의 초가지붕이 스텔트나 합석 및 양기와로 바뀌었고, 70년대에 역시 농가의 안마당에 상수도가 설치되었다. 이외에도 담장, 변소, 부속사, 대문의 순으로 전면적 혹은 부분적 개량이 이루어졌다.

연간 총수입과 부채액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연간 1,5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한편 부채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집은 부채액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농가의 경제사정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농가의 건축년대를 조사한 결과 안화리의 경우 1950-196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대다수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양교리에는 건축된지 약 110년된 고가 한채를 비롯해 193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안화리에 비해 오래된 가옥들이 많았다. 조사지역 가구들은 거주연수 20-40년 미만의 경우가 많았으며 동리별로는 양교리 주민들의 거주연수가 안화리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향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남향선호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남향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농가의 크기는 안채가 6-8칸 미만이 23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평균규모는 약 6칸(약10평)이었다. 한편 사랑채가 있는 집은 총 33가구인데 평균 4칸 정도 크기로서 안채보다 다소 작은 규모를 보였다.

주택의 크기와 더불어 집터의 평수를 조사한 결과 최소 50평에서 최고 600평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집터의 넓이는 189.5평 이었다. 또한 주택내에 보유하고 있는 방수에 있어서는 평균 3개로 나타났으나 이중 가구나 기계, 곡식을 저장하는데 이용되는 방을 제외 한다면 실생활에 활용되는 온돌방수는 1 - 2개에 불과하다.

한편 안채의 평면배치형식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전체조사농가의 평면배치유형을 나누어 본 결과 크게 'ㄱ'자형과 'ㅡ'자형 겹집의 형태로 파악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이(평면도 1과 5참조) 보편적이었다.

〈도표 1〉 동리별 농가의 건축년대

N =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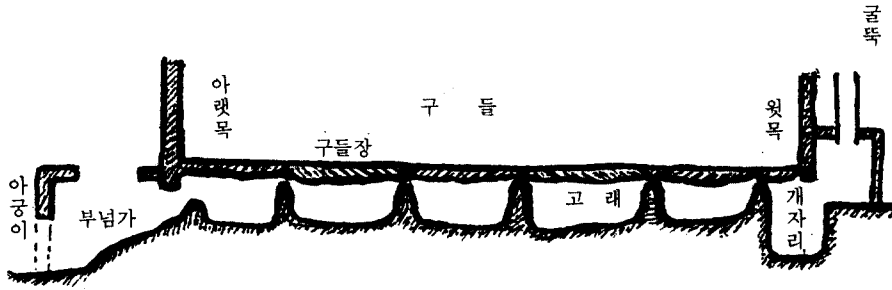
동 리 년 대	안화리	양교리	계(%)
1880	—	1	1 (1.8)
1910	—	4	4 (7.3)
1920	1	4	5 (9.1)
1930	1	7	8(14.6)
1940	2	4	6(10.9)
1950	9	4	13(23.6)
1960	8	6	14(25.5)
1970	2	—	2(3.6)
추 정 불 가	2	—	2 (3.6)
계	25	30	55(100.0)

2. 안방의 물리적 변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농가개량사업의 결과로 본조사지역 농가에서도 여러가지 개량행위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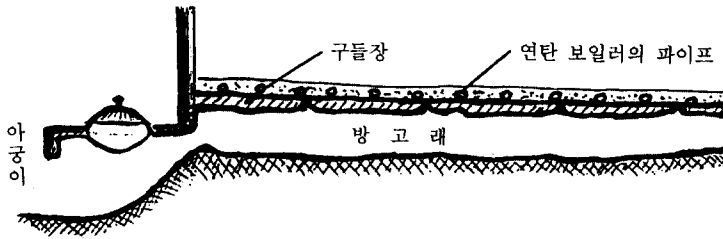
가장 많은 개조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아궁이로 총 55가구중 47가구가 해당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무나 짚을 연료로 쓰던 재래식 아궁이를 1970년대 초반에 연탄아궁이로 바꾸고, 또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등으로 교체하는 가구가 생겨났다. 아궁이에 이어 지붕 역시 개조행위가 많은 부분인데 196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8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종래의 초가지붕을 스텔트지붕으로 바꾸었다. 그외에도 담장, 변소, 부속사, 외양간, 곡간, 창고등을 개량했음이 밝혀졌다.

약 20년전까지 농가의 온돌구조는 한국고유의 방식이었다. 즉 아궁이로 불을 때면 그 열기가 구들을 통과하면서 구들장을 덥히고 연기는 굴뚝으로 나갔다. <그림 1>은 이러한 재래식 온돌구조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1970년경 부터 농가개량사업의 영향으로 난방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나무를 때던 아궁이가 연탄아궁이 아니면 연탄, 기름, 전기보일러로 바뀌면서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출처: 신영훈, 한옥과 그 역사 P.52

〈그림 1〉 재래식 온돌 구조와 그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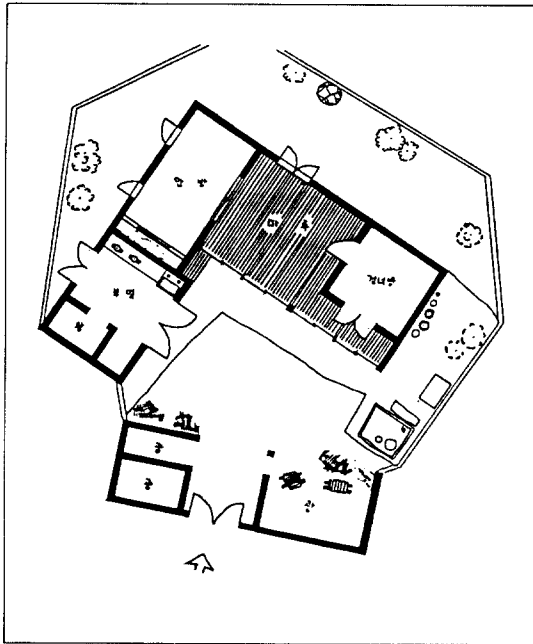
〈그림 2〉 안방의 이중 난방 온돌 구조

〈그림 2〉는 재래식 구들위에 연탄이나 기름보일러 용 파이프를 추가로 설치하여, 소위 이중 난방 온돌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나무나 짚등을 때거나 보일러만 가동하거나 혹은 양쪽을 동시에 활용할수도 있어서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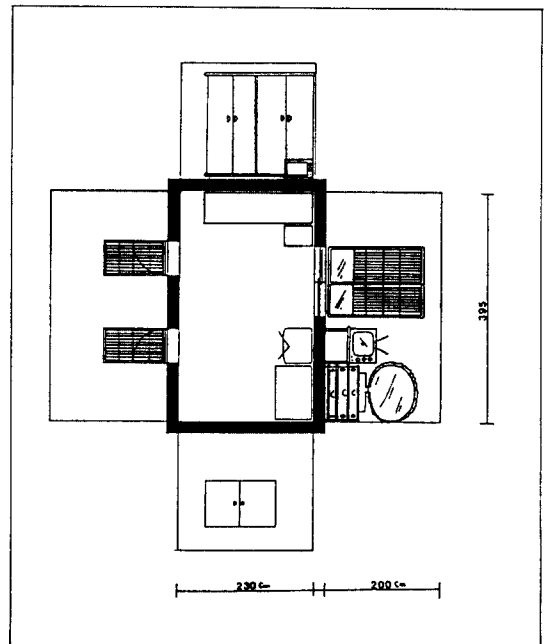
조사대상농가중 위와 같은 이중난방방식이 전체의 60%(33가구)로 제일 많고 기름보일러 16%(9가구), 재래식 아궁이 14.6%(8가구), 연탄 및 전기보일러가 9.1%(5가구)였다. 이 지역에서 생활의 편리와 현대화를 제공하는 시설의 변화는 60년대에 전기가 보급되어, 등잔불이 전기불로 바뀐 것이고, 70년대에는 상수도가 설치된 것이다. 한편 60년대 후반부터 안방을 증축하는 예가 생겨 현재 약 40%가 안방을 확장하였다. 확장이유는 첫째 넓은 안방을 선호하며 들

째는 옷장, TV세트 등이 증가한 때문이다. 확장 방법은 안방을 뜯어서 고칠때 옷장을 놓을 만큼 옷목으로 70 - 80cm 넓히거나 안방밖에 붙어 있는 뒷마루를 없애고, 추녀끝까지 확장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7자로 두 번을 다 확장하기도 하였다. 이때에 그 양상은 다양하지만 난방방식의 변화, 아궁이 개조과정에서 부엌바닥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다락과 벽장 등의 부속공간이 없어지거나, 안방의 방문과 창문이 새로 교체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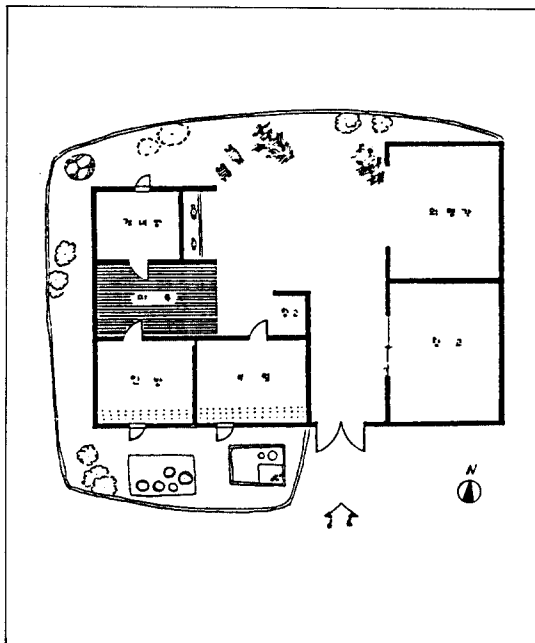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안방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내용을 토대로 안방에서 나타난 개조유형을 파악해 본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번째는 부분적인 개조를 한 ‘부분적 개량형’이 가장 많았는데 47가구중 21가구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도면 1〉과 〈도면 2〉는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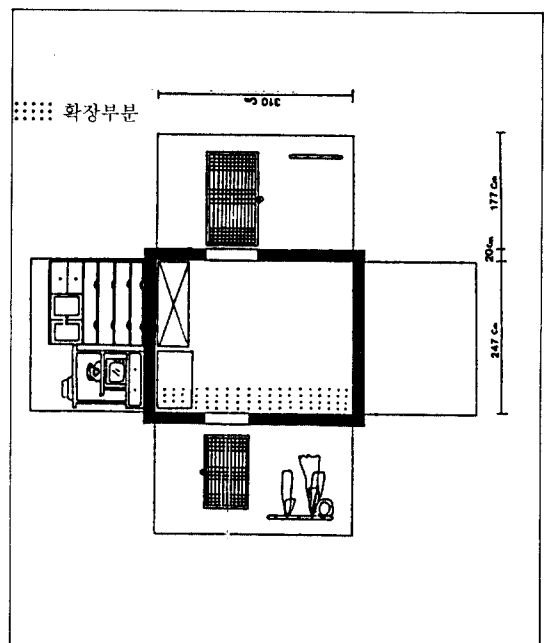
〈도면 1〉 한상복씨댁 전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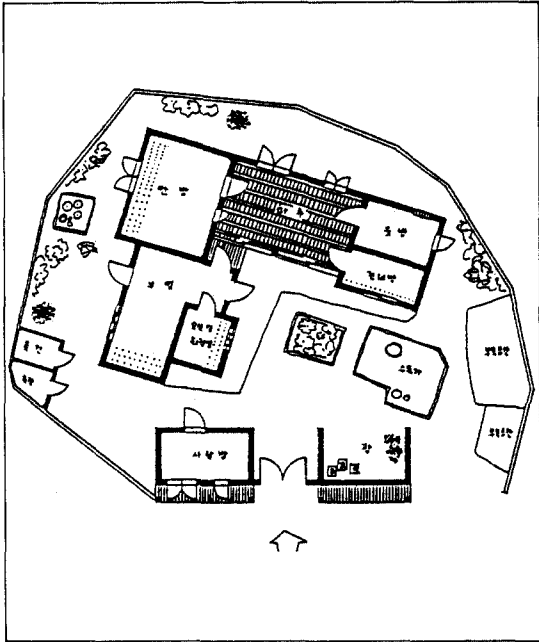
〈도면 2〉 한상복씨댁 안방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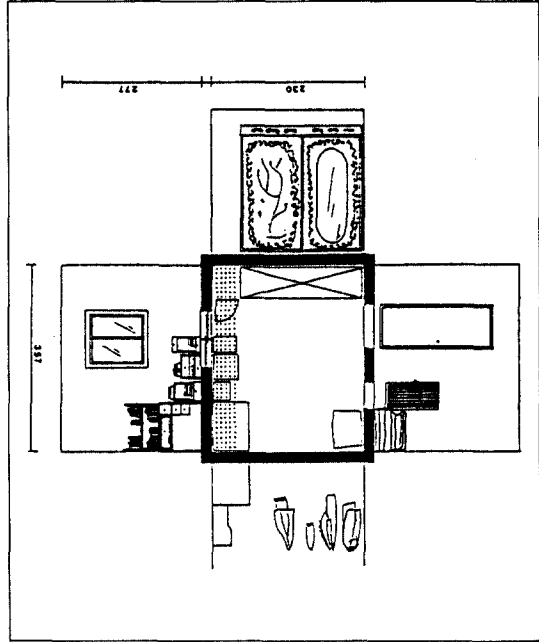
〈도면 3〉 구홍서씨댁 전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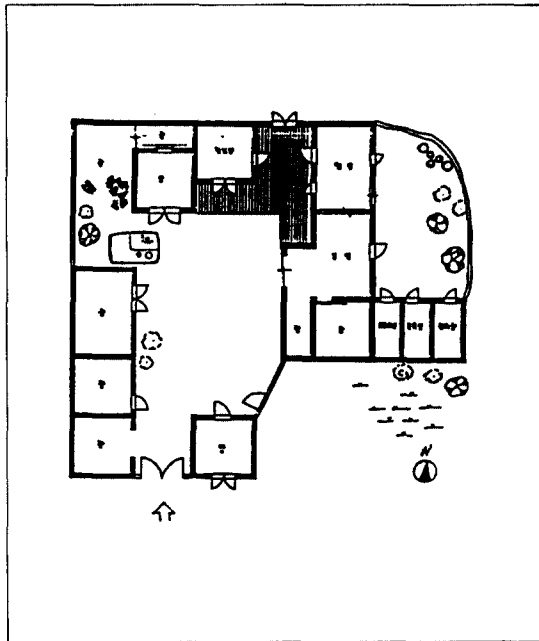
〈도면 4〉 구홍서씨댁 안방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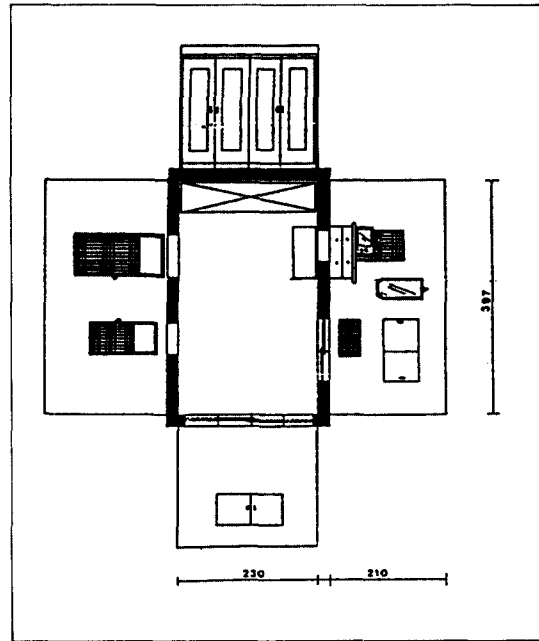
〈도면 5〉 한상혁씨댁 전체 평면도



〈도면 6〉 한상혁씨댁 안방 전개도



〈도면 7〉 최호석씨댁 전체 평면도



〈도면 8〉 최호석씨댁 안방 전개도

두번째는 ‘확대 부분 개량형’으로 <도면 3>과 <도면 4>가 여기에 속하는데 12가구가 있었다.

세번째는 ‘확대 완전 개량형’으로 안방을 확대하면서 재래식 온돌구들장을 완전히 들어 내고 보일러 설비로 파이프를 구들장 대신 방바닥에 묻은 형태로 9가구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도면 5>와 <도면 6>이 그 표본이다. 마지막 네번째는 ‘완전 개량형’인데 안방의 규모는 그대로 두고 재래식 구들을 완전히 들어내고 그 자리에 보일러용 파이프를 설치한 형으로 5가구가 있었다. <도면 7>과 <도면 8>이 이 네번째 유형이다.

안방에 비치된 가구와 소품은 전통적인 것(25개 품목)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현대가구와 소품(24개 품목)이 대체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T.V 세트(53가구), 전화(52가구)와 옷장(37가구)이었다.¹⁾ 안방의 실내 마감재는 1965년 경부터 바

뀌기 시작하여 재래식 장판지나 돛자리가 대부분 비닐장판으로 되고 벽마감도 종래의 흙벽노출 또는 푸대종이가 벽지로 대체되었고 천정도 흙마감에서 벽지나 베니어판으로 마감되었다. 이같은 실내 마감재의 변화는 청소등의 관리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안방을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만들고 있었다.

3. 안방에 대한 행태적 변화

안방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부들은 과거와 변함없이 주택내 생활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간이자 출생과 사망이 이루어 지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방을 여성 중심의 공간으로 여성취향에 맞는 장식품으로 꾸미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다소 증가 하였다.

<도표 2> 안방에 대한 의식의 변화³⁾

시 기	빈 도	백분율 ¹⁾ 시 기	40	50	60	70	80	90	100
			생활중심이고 핵심적 공간이다.	과거 ²⁾					
출생과 사망의 공간이며 신성한 곳이다.	과거								
여성적 공간이며 여성 취향으로 장식한다.	과거								
주로 부부공간이며 폐쇄적 공간이다.	과거								
서구식 주택이라도 안방은 전통양식으로 꾸민다.	현재								
서구식 주택은 안방도 서구식으로 꾸민다.	현재								

1) 각 항목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별로 5단계의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고 그것을 1-5점으로 환산한 후 다시 백분율로 나타냈음.

2) 과거: 주부의 결혼 당시를 말함. 전체 결혼 평균 년수는 약 35년임.

3) 안방에 대한 주부의 의식변화에 대하여는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응답을 받았고, 위의 4가지 항목은 같은 내용끼리 묶은 것이며, 아래 두 항목을 함께 묶을 수 없는 것임.

1) 안방 가구의 변화는 IV의 4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되었다.

안방이 부부중심의 폐쇄적 공간이라는 인식은(66% 정도) 과거와 현재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여하튼 안방에 대한 의식이 약간씩 변화함에 따라 실제 생활행위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부의 행위를 개인생활 행위, 생리위생 행위, 공동생활 행위, 가사노동 행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생활 행위인 취침과 휴식은 과거와 현재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기도나 명상등의 종교행위는 현재 다소 증가한 모습이다.

공동생활 행위에서 안방에서의 식사행위는 예전과 같지만 T.V.시청 행위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가족간의 대화나 접객행위는 다소 감소 되었다. 생리위생 행위중 아직도 안방에서 요강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농가에도 수세식 설비와 전체 난방방식을 갖춘 생리위생공간의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가사노동 행위면에서는 안방 실내 마감재가 바뀌어 청소하기가 용이해 졌으며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여 작업하기에 편리해진 가구가 늘어 남에 따라 옛날처럼 안방에서 음식준비를 하는 행위는 감소되었다.

4. 안방의 물리적 변화와 행태적 변화와의 관계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에 따라 조사대상 농가안방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물리적 변화내용(난방방식, 안방의 부위별 개조, 가구 및 소품, 실내 마감재)과 안방에 대한 의식 및 안방생활이 변했다고 믿는 시기를 연대별로 비교해 보았다. <도표 3>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농가 주부들의 대다수(37명)는 1950년이전 즉 해방후 부터 안방에 대한 의식이 변했으며 또 안방생활도 그때 부터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유교사상에 근간을 둔 내외법에 의해 공간이 성적으로 구분되어 안방이 외간 남자들에게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의식은 바뀌었으나 그 의식의 변화가 실제 생활행위로 연결되어 나타나기까지는 보다 긴 세월이 걸린 것으로 보여진다.

1950년대에는 전통가구와 소품이 없어지는 대신 현대가구와 소품이 구입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이 변화는 1960년, '70년, '80년대를 거쳐 1990년 초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옛부터 사용해 오던 장, 농, 함, 반다지등의 전통가구와 반짓그릇, 다듬이 기구, 요강, 등잔등의 각종 소품들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그 소멸되는 품목수가 증가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옷장이나 이불장등의 현대가구와 T.V.세트, 전화기등이 구입품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1960년대부터 안방의 마감재와 조명, 안방충축, 방문과 창문의 개조, 다락과 벽장등이 없어지는 물리적 변화현상이 나타났다. 이들중 가장 발생빈도가 많았던 것은 안방의 조명으로, 1965년 이 마을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와서 등잔불과 관솔불이 전기불로 대체된 것이다.

조명 다음으로 큰 변화는 실내 마감재의 교체이다. 재래식 방바닥은 장판지나 회종이, 비료부대종이 및 돛자리나 벗집자리등이었으나 대부분이 비닐장판지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또 재래식 벽과 천정은 회종이나 흙마감이 대부분이던 것에서 종이벽지나 베니어(합판)로 바뀌었다. 새로 교체된 비닐 장판지는 과거의 장판지나 돛자리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수월하고 깨끗해서 시간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행위를 줄이는 데 어느정도 기여 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까지는 농가의 지붕, 담장등에 대한 부분적인 개량과 조명, 실내 마감재등이 바뀌었으나, 1970년대 부터는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도표 3>에서 볼 수 있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안방의 온돌구조와 난방방식이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연탄이 보급되어 재래식 아궁이가 대부분(85.4%)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로 대체되고, 8가구(14.6%)만이 재래식 아궁이와 연탄아궁이를 함께 활용하고 있었다.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농가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난방방식은 이중난방방식으로 재래식 아궁이와 구들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것이다.

안방에서의 공동 생활행위중 현재까지도 거의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것은 식사, 휴식 및 취침 행위이다. 반면에 가장 큰 변화는 T.V.시청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다. 1970년대 부터 농촌에 T.V.가 보

화와 불변성을 밝혀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안방의 난방방식과 온돌구조의 변화는 다양하다. 안방의 改造類型은 네가지로 분류되는데, 部分改良型, 擴大部分改良型, 完全改良型, 擴大完全改良型이 그것이다. 온돌구조에서는 재래식 구조도 약간 남아 있으나 二重溫突構造가 가장 많았다. 이 결과로 우리 溫突文化의 不變性を 發見하였는데, 그것은 안방의 난방방식과 온돌구조가 어떻게 변하여도 온돌바닥은 따뜻하게 유지한다는 불변성이다.

두번째는 안방의 家具와 小品등이 전통적인 것으로 현대적인 것으로 대폭 교체되고 있는 현상이다.

세번째는 안방내의 마감재가 재래의 장판지, 회종이, 흙벽등에서 비닐장판지, 벽지, 베니어판등으로 대폭 교체된 것이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점 이외에도 주부들의 생활에서 작업의 효율성과 기능적 편리성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넷째로 농가안방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방은 가족공동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다목적이며 신성한 공간이었는데 대한 의식은 우리의 전통주거문화에서 나타나는 독특성이라고 보겠다.

다섯째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생활행위 중 과거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변한것은 T.V시청행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농가에 T.V.가 보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오늘날 이 T.V.시청행위는 농민들의 으뜸가는 오락이 되었다. 이 반면에 가족간의 대화와 접객행위가 과거보다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과거에 비해서, 안방에서의 기도나 명상등 종교행위가 약간 증가 했으나, 음식준비와 청소, 의류 및 침구관리들의 가사노동행위등은 과거보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엌설비와 구조의 향상과 의생활의 발전 및 주부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결론을 내리면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본 연구에서는 경기

도 평택군의 양교리와 안화리로 한정시켰으나 다른 농촌지역의 전통농가도 연구하여 비교연구를 함이 더 바람직 하다. 2) 본 조사결과 난방방식과 온돌구조의 현황 및 변화시기만이 파악되었을 뿐, 계절적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떤 변화나 관계가 있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안방중심으로, 물리적, 의장적 변화와 주부의 주의식 및 행위를 조사하였는데, 안방 이외에도 건너방, 사랑방, 대청, 부엌등의 여러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농촌주부생활의 변모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부의 생활행위 즉 안방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생활시간, 경제활동 및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5) 안방에서 식사시 식구들이 앉는 자리, 취침시 눕는 위치, 접객시 손님이 앉는 자리등 구체적인 공간 사용 방식을 조사, 분석하여 주생활 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영환, "韓國 農村住居의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3(6), 1987, pp.45-56.
- 2) 金光彦,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 3) 金奉烈, "朝鮮後期 韓屋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4) 金聖雨, 윤정숙, 「서울근교 農村實態調查 보고서. 1, 2, 3」, 연세대 주생활학과·건축공학과, 1988-1990.
- 5) 金正基, "韓國 住宅史의 研究 개요", 주택자료, 1(4), 1972, pp.22-23.
- 6) 金哲鎬, "傳統住居空間의 變遷에 관한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7) 金鴻植, 「韓國 民家の 유형별 분류」, 건축사, 1980.
- 8) ———, 「민속 綜合 調査 報告書」(주생활편), 한길사, 1985.
- 9) 박경립, "전일적 世界觀으로 본 韓國 傳統 建築의 空間的 特性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6.
- 10) 박경옥, "農村改良 住宅의 平面構成에 관한 研

- 究”(I)(II), 생활공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0000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3), 4(1), 1987-1988.
- 11) 신영숙, “住居空間 사용 측면에서 본 家族間 상호교류 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12)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 한국건축사대계 1, 동아문화사, 1975.
 - 13) ———, 「韓屋의 造營」, 광우당, 1987.
 - 14) ———, 「韓國의 살림집」(上, 下), 제3판, 悅話堂, 1989.
 - 15) 송민영, “안방에 대한 現代人의 意識 및 사용형태에 관한 研究”, 연대교육대 석사논문, 1988.
 - 16) 유옥순, “韓國 農家 住宅의 부엌 空間 變化要因에 관한 研究”, 연대 주생활과 박사논문, 1988.
 - 17) 윤복자의, “韓國住居形態 變遷過程에서 본 住居學의 生態學的 概念定立”, 대한가정학회지, 28(3), 1990.
 - 18) 尹張燮, 「韓國 建築史」, 동명사, 1987.
 - 19) 윤정숙, 김성우, 최병숙, “서울근교 농촌주택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3), 1989.6.
 - 20) 이규태, 「우리집 이야기」, 기린원, 1991.
 - 21) 李東樂, “農村住宅 室內 生活空間의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8.
 - 22) 이 원, “農村住宅의 住空間과 住生活 상호 영향에 관한 研究”, 연세대 석사논문, 1987.
 - 23) 林春森, “農家住宅의 空間利用變化에 관한 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1989.
 - 24) 장보웅, 「韓國의 民家 研究」, 보진재, 1986.
 - 25) 지 순, 윤복자, 윤정숙의 2人, “農村 부엌의 改善 및 標準化에 관한 研究”(1), 대한가정학회지, 29(1), 1986.
 - 26) 曹成基, “韓國南部地方의 民家에 관한 研究”, 영남대 박사논문, 1985.
 - 27) 趙在順, “農村 家政生活 向上에 따른 住居空間에 관한 研究”, 이대 석사학위논문, 1978.
 - 28)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일지사, 제5판, 1987.
 - 29) 최병숙, “서울 근교 農村住宅에 있어서 食事 및 炊事 空間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8.
 - 30) 崔璨煥, “韓國의 農村과 都市 住居樣式의 比較 研究”,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31) 한필원, “農村地域 農家住宅의 利用패턴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건축학과 석사논문, 1987.
 - 32) 洪亨沃, “韓國人의 住居調整 및 適應에 관한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86.
 - 33) Allsopp, Bruce, *A Modern Theory of Architecture*, Routledge & Keganpaul, London, Henley & Boston, 1977.
 - 34) Bourne, L.S., *The Geography of Hous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1.
 - 35) Morris, E.W., & Winter, M.,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 36) Naisbitt, John, & Aburdene, Patricia, *Megatrends 2000*, New York, Avon Books, 1990.
 - 37)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Pri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69.
 - 38) Robert B. Bechtel, *Behavior in the House* : “A Cross cultural comparison using behavior”—setting methodology— Low, Setha M, Chambers Erve, *Housing Culture and Design*, Univ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75.
 - 39) Rudofsky, Bernard, *The Prodigious Builders*, Robert Anthony, Inc. N.Y., 1977.